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평생학습 여정을 담은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수상작에 담긴 의미 있는 경험과 성취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

CONTENTS

※ 비공개 요청 시 무기명처리

최우수상

박현숙	8
서나루	10
이00	12

우수상

김00	16
김동일	18
박00	20
송혜영	22
신민정	24
이00	26
이다인	28
조정화	30
최00	32
한진주	34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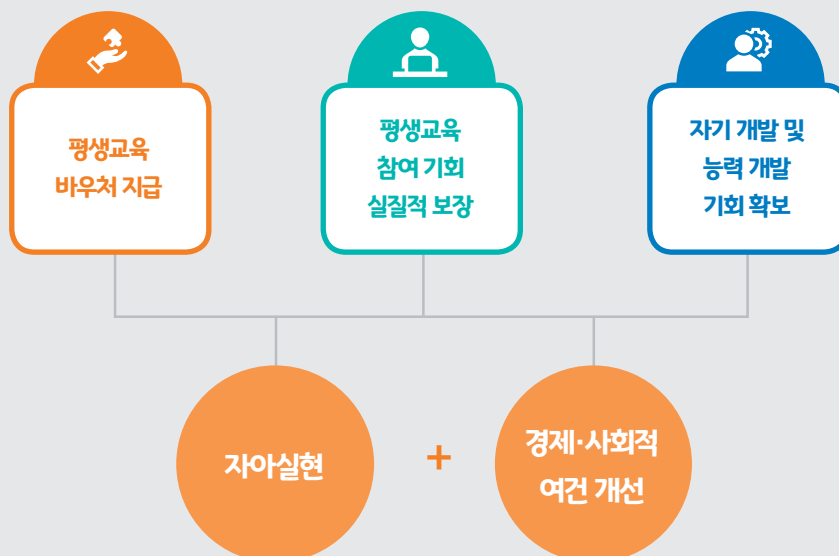
권종림	38
김00	40
김00	42
김00	44
김00	46
김미애	48
김미용	50
김혜경	52
이00	54
이00	56
이동근	58
이인석	60
이지은	62
정00	64
조00	66
최00	68
황지혜	70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단계 교육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연간 35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원



이용 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계획,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을** 지원합니다.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면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 받아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취미, 교양 강좌까지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습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형식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수강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최우수상

*** 박현숙 ***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 서나루 ***

평생교육바우처로 내 운명의 바위를 들어올려,
더 밝은 미래로 날려 보내다.

*** 이00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상담사까지

최우수상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박현숙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습관처럼 그 가게로 들어갔다. 그곳은 예전부터 가끔 들러 필요한 액세서리를 사곤 했던 '가온공방'이라는 가게이다. 조명 아래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비즈 액세서리를 보며 귀걸이를 꺼내 대보며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다.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과 대비되는 초췌한 내가 보였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지난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업을 시작했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쫓박 말아먹었다. 그 표현이 경망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 만큼 내 상황을 잘 표현해내는 말이 없다고 본다. 십여 년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다 날아가 버렸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병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우울해 보였고 자신감을 잃었으며, 물 먹은 솜같이 무거워 보였다. 사업을 말아먹은 이후 나는 불면증이 생기고 답답한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병원에 다녀야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마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두 눈을 감고 의욕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물에 떠서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냥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어느 날 가온 공방 원장님이 나를 보고 비즈공예를 배워 보라고 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을 날린 백수에게 몇 십 만원 하는 수강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를 만들면 비즈 공예를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어 '아이디어스'에 팔수도 있고요." "정말요?" 무료로 배운다는 것에 귀가 솔깃했고, 그렇게 만든 것을 팔수도 있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다. 바로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노안이 온 눈으로 작은 비즈구멍에 줄을 끼우며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라는 생각도 들었다. 왕년에 나름 손재주로 칭찬 받았었는데 비즈는 좋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도 비즈로 만든 카드 지갑과 팔찌는 나의 애장품 1호이지만 비즈 공예에 대한 흥미는 지속되지 않았다. 대신 내 눈에 들어 온 것은 벽면에 전시된 수많은 캘리그래피 작품들이었다. 캘리그래피 작품의 맑은 수채화와 글귀를 보며 나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배울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우수이용자'로 선정되어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캘리그래피는 비즈와 달리 연습한 만큼의 결과를 정직하게 보여준다. 캘리그래피의 그림을 그리다보니 내가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어 더 재미있었다.

글씨를 쓰며 느낀 것이 있었는데 캘리그래피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ㄹ, ㅅ, ㅁ, ㅂ, ㅎ...등의 자음의 획을 정해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긋는다. 붓펜의 굵기와 눅히기 조절로 색다른 표현을 한다. 글자 간

간격을 레고처럼 음과 양을 조립하여 표현한다...등 그 규칙을 알고 연습하니 캘리그래피를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다. 규칙은 마치 힌트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시작하려했었던 사업에도 분명 규칙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놓친 사업의 힌트는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의 사업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사업의 규칙을 알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한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나의 능력 파악한다. 사회 경제 상황 파악한다. 전문가와 상의한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막연히 낙관하지 말아야한다. 나는 늘 규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사업의 규칙은 잘 몰랐었던 같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때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달려갔던 게 아니었을까. 좋은 글귀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다보니 마음이 안정되어서일까. 이제는 원망보다 수긍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다. "캘리그래피 관련 강사로 일을 할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방 원장님의 권유로 지금은 '수채 캘리그래피'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가 없었다면 **내게 이런 배움의 기회가 있었을까. 내게 그림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분야를 발견하게 되었을까? 평생교육바우처카드 덕분에 수많은 액세서리 가운데 내게 딱 맞는 귀걸이를 골라낸 것처럼 나는 비즈공예와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내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새롭게 알고 찾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국가자격증인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도 획득했다. 앞으로 나는 꽃집에서 일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하거나 캘리그래피 방과 후 강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은 내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물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지 않나?'하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이다.** 캘리그래피로 여러 문구를 쓰며 이런 글을 알게 되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윤도현의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 가사이다. 세상 그 무엇 하나 저 홀로 서게 된 것이 있을까?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맞닥뜨리며 때론 절망과 무력감으로 이 제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다. 내가 그랬다. 그 때 나의 손을 잡아 세워준 것들이 있다. 애처롭게 보던 엄마의 눈빛, 동네 친구와 밤에 산책하며 나누던 수다...그 중에는 공방 원장님의 조언과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복지의 뜻이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 하나가 '홀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될 것 같다.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도 그 복지 정책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자격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가슴 설렌다. 다음에 내가 캘리그래피 강사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일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형태이든 나도 다른 이를 도와주고 싶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평생교육바우처로 내 운명의 바위를 들어올려, 더 밝은 미래로 날려 보내다.

서나루

너무 일찍 철든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위태로운 가정의 맏이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중재해야 했고, 한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으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면서도 반면 나를 살게 한 것은 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이어진 가정폭력과 가난은 근본적인 고통으로 자리했고, 이를 치유하고 달래기 위해 해결책을 찾는 여정도 그 시절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은 '가난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믿고 저는 그것을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어,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세상의 아픈 개인과 가족을 돌보겠다. 억센 고난은 꿈을 크게 키웠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큰 꿈. 그 꿈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와 대학생활은 마치 철봉운동과 같았습니다. 철봉 턱걸이가 힘든 까닭은, 다른 무엇이 아닌 자신의 무게부터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타인의 짐을 나눠지기 전에, 가난한 이혼 가정의 첫째 아이로서 동생들부터 책임지는 짐을 먼저 져야 했습니다. 타인의 곁핍을 채워주고 싶었지만 저와 가족 생활비부터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난과 폭력, 결핍과 설움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깨끗이 털어내고 그 자리를 희망으로 채우겠다는 뿌리 깊은 사명은 저를 사회복지와 심리학도의 길로 이끌었지만, 생활인으로서의 경제적 난관은 저를 몇 번이나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고도로 선진화된 심리치료 패키지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한국형 통합 사례관리체계'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방법론 중 가장 복합적인 접근인 '다중체계 치료'를 지역사회에 도입하고 확대해나가서, 한국형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피해자 위기관리 통합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전국 위기지원 표준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청소년 안전망(옛 CYS-Net)의 심리치료 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계신 유능한 심리학자·사회복지사·교사·의사·주제별 전문가·경찰·행정가분들의 서비스를, 수요자와 서비스 두 차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통합해 공급하며, 꾸준히 지역사회 치유·성장자원을 발굴하여 통합지원체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합·조정하는 '한국형 통합 사례관리체계'의 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직업·진로, 가족, 성장, 건강, 복지, 교육, 평생교육 등 삶의 제반 주제에 대응하는 직업상담사, 건강 가정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복합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해당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현장 실무를 모르고 저의 프로그램에 사회복지사를 모실 수 없고, 직업상담 절차를 모르고 직업 상담사를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먼저 정의하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에는 심리학, 행정학, 청소년학, 지역사회학, 복지학, 가정학, 통계와 빅데이터까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공부와 현장실습을 통해 심리건강 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전인적·전생애적 지원에 어떤 생각이 못한 측면이 있을지 배울 때마다, 완전한 배움이라 믿었던 대학교육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절감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4년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머지 배움은 스스로 평생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있었습니다. 교육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장학금도 종료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족이 살던 집은 없어지고, 남은 혈육도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옆친 데 댄친 격으로 취업 준비 중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입영까지 9개월, 전역까지 30개월이 남은 상황. 병역문제 해결된 ‘군필’이 아니기에 정규직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임대주택,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점 당 45,000~90,000원에 달하는 수강료는 넘기 힘든 문턱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수십만 원 학원비를 선뜻 낼 수 없었기에, 학과사무실에서 폐기한 철 지난 2010년대 자격증 교과서를 주워 공부하고, 유튜브 무료 강좌를 보며 버텼습니다.

그때 구원처럼 내려온 것은 ‘평생교육바우처’였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한국형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학문 분야와 국가자격을 연결 짓고, 매 학기 350,000원의(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스스로 공부하고 있음을 자각하고자 매 6개월을 ‘학기’라고 부릅니다.) 바우처로 하나하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나갔습니다. 모든 서비스의 기획·평가 근거인 빅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사회조사분석사2급’, 심리치료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 위기대응을 위해 ‘청소년상담사3급’, 복지 서비스 현장실무를 위해 ‘사회복지사1급’, 지속가능한 장기 자립을 위한 직업진로 상담·생애코칭을 위해 ‘직업상담사2급’ 및 ‘평생교육사2급’, 의뢰인 가족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사2급’, 제반 기술들을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청소년에 맞춤형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2급’을 취득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다음 단계인 ‘ADsP’와 ‘빅데이터분석기사’ 취득을 위해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힘으로, 저는 가난한 청년에서 우리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조각하는 사회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어떤 고난도 교육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 없도록 삶을 배움으로 꽉 채우고, 인생의 굴곡을 희망으로 승화하게 한 평생교육바우처. 저는, 자신의 진중한 운명의 무게를 들어 올리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든 인재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권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개가 데려다줄 더 희망찬 미래에서 우리 웃으며 만납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상담사까지

이OO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제 인생은 늘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도움 없이 강제로 독립해 혼자 삶을 일으켜 나가는 것에 익숙했던 저였지만, 어떤 일을 해야 앞으로 이 한 몸을 건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성화된 무기력증에 파묻혀 인생의 젊음을 허망하게 보내고 있었던 그때, 우연히 발견한 우편함 속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문. 이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인터넷 검색으로 평생교육바우처 공식 블로그 글을 하나하나 정독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비용을 3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 제도가 저에게는 너무 필요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8월 말에 신청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처리가 10월 중순에야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다음해를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어떤 일을 즐겁게 평생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기에, 제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급까지 취득하여 4년제 학위과정까지 밟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훌쩍 흘러 이듬해 3월이 되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해 바우처 카드로 사회복지학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문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이 결실로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모든 수업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성적을 기록하여 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현장에서 불안과 무기력에 휩싸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례관리를 보조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사 학위 취득 과정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로 선정되어 학사 취득 과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은혜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은 물론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에도 고득점으로 합격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원래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중, 청소년과 가족에 전문화된 심리상담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 여성가족부에서 공인하는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과 건강가정사 자격증 덕분에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공고에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었습니다. 제가 목표한 바를 달성해가면서 사회의 여러 직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곧 그동안의 자괴감, 무기력감, 외로움의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극복하며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고마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청소년 심리상담으로 분야를 좁혀가 저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학사 학위에 심리학사 학위까지 취득하기 위한 수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얼마 전에 실시했던 여성가족부 국가공인 심리상담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서도 고득점 합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사학위를 비롯해 여러 관련 분야의 자격증도 따고, 저만의 기술도 습득하면서 취업을 비롯해 창업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이자 삶의 전환점이 된 저에게 이제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기력하고 절망뿐이었던 제 삶이 활기와 희망으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 삶의 가능성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을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우수상

*** 김00 ***

희망이라는 우물의 두레박

*** 김동일 ***

배움의 때는 평생입니다.

*** 박00 ***

연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 송혜영 ***

“희망속에서 피어난 꽃은 시들지 않는다”

*** 신민정 ***

내 삶에 희망을 가져다준 평생교육바우처

*** 이00 ***

기회의 가치

*** 이다인 ***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
평생교육바우처로 새로운 기회를 얻다.

*** 조정화 ***

너 덕분이야. 평생교육바우처

*** 최00 ***

늦깎이 취업준비생

*** 한진주 ***

관광통역안내사를 향한 나의 첫 걸음

희망이라는 우물의 두레박

김OO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 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혜택은 뜻밖의 선물과도 같았다.** 나는 종종 정신장애로 망상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못난 사람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망막하던 때에 하루를 살아낼 미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앱을 설치하고 어떤 미술 강의를 배울지 살펴보았다.

소묘, 유화, 수채화, 색연필화, 재봉틀 다양한 커리큘럼 가운데 색연필화를 선택하고 스케치북을 고르고 색연필을 고르는 과정은 맛있는 식사자리에 초대되어 무얼 먹을까 고민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보내다가 미술 강의는 언제 들을 것인지 설거지는 언제 할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얼 할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된 것이다.

색연필화 첫 강의는 색연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부터 시작이었다. 색깔마다 스케치북에 칠을 하며 강하게 연하게 그리는 과정을 시작으로 혼색하는 방법을 배우면 스케치북에 그리고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내가 평생교육바우처로 색연필화를 배우기 시작했음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렸다. 열심히 해보라는 사람도 있었고 색연필 색깔이 예쁘다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냐고 기대를 품는 친구도 있었다.

정육면체, 원기둥 등 기초적인 것을 시작으로 과일을 그리는 과정들을 지인들에게 알렸더니 그림 잘 그리네 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칭찬을 들으니 더 잘 그리고 싶어졌고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다시 보기하며 매일이 즐거운 날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바나나를 그린 날은 내가 보기에 실물과 너무 흡사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겼고 진득하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는 잡념을 없애 주었고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사람의 눈 코 입을 그리는 것을 배우고 인물화를 그리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인물이 대상과 다르게 표현 되어 아직은 내가 초보자라 강의하는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내 시작은 미약 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혹시 아는가. 내가 화가가 될 날이 올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잠길 때도 있었다. 가장 그리고 싶은 것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아롱이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생각에 나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 집 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으로 그림은 더 깊은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림 배우기의 시작으로 한문 공부에도 도전을 하였고 성경책을 읽고 책을 읽고 하루를 채워가는 일이 다채로워지기 시작하였다. 한마디로 그림 그리기 공부가 내 삶에 물꼬를 튼다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인터넷으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찾아보고 상업용 그림들을 보고 고흐의 갤러리를 사서 그림을 감상하고 오래전 읽었던 한젠마 작가의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도 다시 읽게 되었다. 미술이 마음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내 생활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한 작품, 한 작품이 마무리되면 왠지 모를 만족감이 들었고 누워 지내던 일이 줄어들면서 무력감으로 망상에 점철되었던 생활이 좋아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밝게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카톡 중독자처럼 카톡에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어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 같은 초보자가 이정도 그리는 것은 잘 그리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몇 달 동안의 그림들을 훑어보았다. 나는 이 때 행복했던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림을 시작한 일은 목표에 도달하는 첫 단추를 끼운 일인 셈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행복했다.

인터넷으로 구축화가를 찾아보았다. 그들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운데 나도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노력하면 될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도 인터넷 미술 강의를 듣는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림 배우기는 지인들에게 자랑이 되었고 소통의 매개체 역할도 해주었다.

어느 날 오빠가 외국의 어느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칠십의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갤러리에 작품을 꾸준히 전시하는 화가의 이야기였다. 오빠가 나에게 늦지 않았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배우던 배우는 일은 세상에 대한 겸손한 마음일 것이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준 기회는 나에게 희망이라는 우물에 두레박 같은 것이었고 앞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조미하 시인은 얘기한다.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고, 오십이라는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쩌면 제 2의 인생을 꿈 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내가 지쳐 있을 때 문을 두드려 준 평생교육바우처는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라는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혼자만 누리는 기회가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나라에 감사드린다.



*



*



*



배움의 때는 평생입니다.

김동일

나는 1956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197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으로 대학을 포기했다. 보세 무역을 하는 공장에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뒤늦게 전문대학을 입학하여 1983년에 졸업했다. 그 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 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잘한 덕에 2005년에는 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토목사업으로 돈을 벌면 소망하던 사회사업으로 노인복지요양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2013년 명지대 사회교육원을 통하여 학점은행제도로 사회복지를 공부도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사업은 2014년 9년 만에 폐업으로 막을 내렸고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도 자연스럽게 2막을 준비할 여력도 없이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물질의 문제보다 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린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니 길이 보이는 듯했다. 돈으로 사회사업을 하려고 했던 틀에서 벗어나, '없는 돈을 타하지 말고 건강한 육체인 몸으로 사회에 이로운 일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보니 다른 길이 보였다. 순탄하지 못했던 나의 아픈 과거를 반면교사로 청소년들에게 인생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인 청소년 미래재단의 청소년 진로 서포터즈 활동부터 시작해 보았다. 역시 기회는 찾는 자에게 주어지고 인간관계는 점차 확대되어 용인 청소년 미래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을 강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나가 해결되니 '용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경제를, 용인YMCA에서는 소비자 교육을, 월드비전에서는 세계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봇물 터지듯 열렸다. 너무 오랜 세월 속에 잊고 있던 청소년들이라 세대 차이를 극복하자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 한국방송통신대학 청소년학과를 2017년 편입학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졸업했다. 꿈에 그리던 사각모를 쓰며 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학사 자격을 이루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것을 취득하려면 그에 상응한 수강료를 주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사실 내겐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 생활이 아니다. '기회가 있으면'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 자격증인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위해 학점은행을 한국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색하던 중 우연히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2021년에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작년에 포기했지만 메모해두었던 평생교육바우처를 찾아 혹시 하는 마음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중위소득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다 늦었지만 66세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수강할 수 있는 35만 원을 받았다.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했다. 그동안 토목 현장에서 몸이 배서인지 학교 수업을 하려면 학교 안전이 필요하고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안전에 관한 자격을 찾아보았다.

마침 학교 안전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가 열려있기에 우선 그것부터 도전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온라인 교육을 온전히 수강하고 시험 후 당당히 자격을 취득했으며 경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꿈의 학교에 안전교육 강사로 완벽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잔여 수강료는 평소 관심이 많았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 우리 동네 장애인 평생 교육학교에 전화해보았다. 담당자는 마침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미있는 스포츠 게임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다고 했다. 곧장 수강 신청을 했고 장애인들과 새로운 실내 스포츠 게임에 하나인 론볼 미니 게임을 즐기며 배울 수 있었다. 장애인들과 호흡을 맞추며 게임을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그들의 불편한 부분과 실재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소중한 기회였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약간은 어두운 곳에 그리고 소외되어 울고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감사하게도 우수 평생교육 학습자로 추가로 지명되어 교육을 더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기회는 평소에 구상했던 계획대로 70세 인생 3막을 준비하기 위해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공부에 도전하고 있고 장애인들과 시문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장애인 학우들과 시를 함께 논하고 문학을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로도 가슴이 뗌다. 내 인생의 멋진 글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잘 배워 남기고 싶다. 그리고 배움에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주저하는 학습자들에게 소리쳐 외치고 싶다.

“배움의 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공평하므로 찾는 자에만 눈에 보이고 성취의 맛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생 배우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



*



*



연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박OO

“왼쪽 회전근개도 파열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며 초음파 측정 모니터를 보면서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오른쪽 회전근개가 파열된 지 십 년만에 그 반대쪽 어깨마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이 먼저 떠올랐다. 수술 여부, 고통의 지속성 정도, 재활 가능성 등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바이올린 연주’를 이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평생교육 바우처>. 아, 미안한데 정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는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위해 조금씩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음악공부를 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 만약 문화센터나 바이올린 전문학원 등에서 강습을 받게 되면 생활비에서 식료품비를 줄여야만 했다. 그런데 <평생교육바우처>와 인연이 닿은 후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 특히 2021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에서 일 년에 두 번 지급해 주는 총 칠십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문화센터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었고 바이올린 전문학원도 내가 돈을 조금만 보태면 근근이 다닐 수 있었다.

지체 2급으로 중증 장애인인 내가 바이올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였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기출문제로 문항 1번 비교 문제, 문항 2번 자신의 입장에서 논술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십오 년 정도 대학입시 논술 강사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가 진도 팽목항에서 가라앉은 해에 나의 강사 생활도 ‘사회’라는 거대한 수면 위에서 ‘실업 상태’라는 어두운 수면 아래로 함께 가라앉았다. 실업은 비장애인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인 중증 장애인들이야 말해 무엇 할까. 실업자가 된 그 해부터 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에만 기댈 수 없었다. 빨리 극복하기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였다.

바이올린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창 펄먼’ 때문이다. 그와 나는 신체적 장애 정도가 거의 같아 보인다. 휠체어를 타지만 목발을 아주 간혹 간신히 짚을 수 있는 정도. 그는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그냥 바이올리니스트였다. 내 지나온 젊은 날들처럼 자신과 동시대를 사는 연주자들과 ‘맞장 떠서’ 밥벌이 한다는 측면에서 내게 그는 전범(典範)이었다.

“흠, 이창 펄먼도 하는데 뭘!”

내 몸은 오른 쪽 어깨 회전근개가 십년 전에 파열되었고, 등 기립근이 측만증으로 에스자로 휘었으며 왼발에 비해 장애가 심한 오른발이 자주 돌아가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켜기엔 너무 힘들었다. 바이올린 연주로 몸이 고통스러울 때면 늘 ‘이창 펄먼도 하는데, 이창 펄먼도...’라고 마음속 혼잣말로 나는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재활 체육센터에서 나와 장애

정도가 비슷한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은 중증 장애라도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였다. 따라서 이차 펄먼과 내가 장애 정도가 같아 보여도 막상 속을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무의식속에서 인정하기 싫었나 보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가며,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어가며 꽤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바이올린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평생교육바우처> 때문이다. **내가 음악 공부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곳이 <평생교육바우처>였다. 나는 <평생교육바우처> 덕택에 집중해야 하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우울증을 넘길 수 있었다.** 팬데믹 기간 행정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는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음악개론’, ‘시창·청음’ 같은 음악 이론 공부를 하였다. 잠시라도 봉쇄령이 풀리면 CBS문화센터, 흙플러스 문화센터, 바이올린 전문학원 등으로 신이 나서 달려갔다. 어깨가 아팠지만 아픈 줄 모르고 매일 한두 시간씩 연습했다. 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이차 펄먼을 생각하며, 바이올린 연주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평생교육바우처>에 고마워서.

그런데 올 해 초 지인 장례식장에서 바이올린과 이별해야 하는 사건이 터졌다. 방명록에 서명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목발을 짚는 순간 내 몸이 휘청하며 힘이 없어졌다. 왼쪽 어깨가 감전되는 것처럼 찌릿하며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이 순간에도 바이올린이 먼저 떠올랐다. 아, 바이올린 연주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어깨를 다친 그 당시 내 일기를 들여다본다.

“새벽에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 잠을 깨었다. 처방한 한 주먹 진통제를 먹으며 생각했다. ‘바이올린’ 연주, 역시 무리인가. 이제는 그만 헤어지자. 바이올린과 ‘헤어질 결심’을 한 기분은 기랄스러운 성격의 여자와 사귀다 헤어지는 기분이다. 잘될 것 같았는데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이렇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존재라면 이쯤해서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아쉽다.”

바이올린이 아니어도 연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의 신체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바이올린 소리와 가장 비슷한 맑은 선율 음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찾기 위해서였다. 너무나 좋아하는 악기들인 바이올린 족의 현악기 그룹은 당연히 탈락, 피아노도 강렬한 타건을 필요로 하는 포르테를 칠 때는 어깨 근육을 많이 쓰기에 탈락, 클래식 기타와 포크 기타도 내 장애 조건에 그리 유리해 보이지 않아 탈락, 타악기는 공간 문제로 탈락. 그럼 이제 남은 건 관악기뿐이다.

앞에서 예를 든 악기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교적 강습소가 많고 수강료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루트, 오보에 등의 목관 악기나 트럼펫, 호른 등의 금관 악기는 위의 두 조건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하모니카가 떠올랐다. 그 이유는 우선 어딘지 모르게 바이올린 소리와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이올린에 비해 약간의 금속성 소리와 산만하게 들리는 분산 화음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온라인 학원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도 선택하는데 한 몫을 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보던 중에 최종적으로 하모니카를 선택한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크로매틱 하모니카>(선율 중심으로 클래식 연주에 어울림)를 알게 된 것과 세계적인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음악 감독으로 있는 하모니카 전문 학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잘하면 ‘핑 대신 뉘’이 아니라 ‘핑 대신 또 다른 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바이올린과 ‘헤어질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어쨌든 연주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지금은 <평생교육바우처>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분다. 악기 연주로 인한 그 어떤 신체적 고통도 없이. 몇 년 후에도 내가 사는 임대아파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날을 꿈꿔 분다. 어르신들이나 나와 비슷한 장애우들에게 <크로매틱 하모니카 강습>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이러한 꿈을 꾸게 해주신 <평생교육바우처> 관계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희망속에서 피어난 꽃은 시들지 않는다”

송혜영

인생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과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평범했던 내 삶에 소리없이 찾아왔던 슬픔과 절망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에게 와준 선물.

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선물로 얻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건강을 잃어버렸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병마와 싸우며 보내고 있는 중이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어서야만 했다.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처참하지만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니 현실이 보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이사 와서 새로운 일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를 마쳤지만,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니 운전 가능, 운전자우대라는 옵션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나이 제한도 마음에 걸렸지만 제일 중요한 운전을 못하는 나에게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학원에 등록 할 여유조차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연치 않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운전학원이 해당된다는 걸 확인 후 바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다. 덕분에 운전학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 평소에 운전하는 걸 무서워하는 나였지만 멋지게 해내고 싶었다.

이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다. 높은 점수로 이론시험도 통과하였고 겁이 났던 실기시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로 공부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일 자신 없었던 도로 주행시험에서는 한번 떨어졌다. 다시 연수를 하고 재시험을 보고 싶었지만 운전학원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때마침 우수사용자로 다시 한 번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이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니 합격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운전면허증을 뺐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는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운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숙달이 된 후에 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연수를 받으며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싶었다.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을 때, 2022년에도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어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서웠지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보니 이제는 운전이 조금은 어렵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내가 꿈꾸는 제2의 직업인 사회복지사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많은 시간을 어두운 절망 속에 빠져 보냈다.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에, 희망의 날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비장의 무기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준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오늘도 나는 아이와 함께 할 인생을 준비해 간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 서지 않고 천천히 더 배워 가보려고 한다.**

내가 어려웠던 순간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면서 나의 직업이었던 미용기술을 통해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가고 싶다.

사람들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계절이 다르고 환하게 꽃피우는 시기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내 모습에 많은 것들이 두렵지만, 나의 꽃피는 시기는 조금 늦어질 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무기 삼아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환하게 피어 날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 먹구름은 한 순간인 것 같다. 어두운 구름이 맑은 하늘을 덮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희망을 찾은 것처럼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



*



*



내 삶에 희망을 가져다준 평생교육바우처

신민정

어두움이 짙게 깔린 바다 한가운데, 조각배 하나가 있다. 조각배에 타고 있는 내게 보이는 건 바다뿐이다. 지금 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잃고 그저 멍하게 있을 뿐이다. 캄캄한 바다와 먹보 다 더 검은 하늘..., 그런데 뒤덮인 구름 사이로 초승달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달은 내게 희망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때까지 나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나에게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만 들었다. 첫째아이는 자라는 과정 속에 또래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다. 아기 때부터 목을 가누는 것, 뒤집기, 배밀이, 잡고 일어나기, 걷기... 모든 부분이 늦고, 서투르고 부족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 5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왜 말을 하지 못할까?', '아이가 청각손상을 입었나? 무슨 문제인 걸까?' 말을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지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다.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지만, 1년 뒤면,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될까.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집중도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엎드려 있고, 착석도 안 되었다. 학교에 가면 매시간 40분 동안 의자에 앉아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사를 정확히 받아야 할 것 같아 대학 병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했다.

의사로부터 세포분열의 오류로 Y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XYY염색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IQ가 낮고, 학습장애, 지적발달, 언어와 대화발달의 지연, 사회성, 모든 부분이 또래보다 확연히 차이가 날것 이라고 했다. 의사는 현재 아이의 수준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면 좋겠다고 조언해주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앞에 나는 아득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도 아이의 인생도 이제 끝이구나, 내 앞길엔 한줄의 빛도 없는 캄캄한 절망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엄마다. 철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절대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며칠 동안 줄곧 내 머릿속에 든 질문은 '내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지낸다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였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생각해보니 먼저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했다. **장애교육, 특수아, 가족상담, 심리상담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방향을 잡았지만 이런 결심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교육비였다.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형편이 어려워 쉽지 않던 차에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평생교육바우처였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너무 반가웠고,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뻐다. 나는 밤하늘에 걸려 있는 초승달이 마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았다. 그래 저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자. 나는 내 생애 가장 밝고, 아름다운 초승달의 위로를 받으며 바다를 향해가기 시작했다. 원래 희망이란 게 가장 힘들 때 가장 작은 위로를 머금어서 가장 큰 빛을 발한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구나 싶었다.

지금 나는 '평생교육바우처' 라는 초승달 인도자 삼아 아이를 이해하며 잘 키울 수 있는 희망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아이를 돌보다 보니, 엄마인 내가 아이의 XY중후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중후군은 똑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어도 기질이나 성향,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없었다. 무조건 아이의 행동을 통해 알아가고, 공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심리상담, 특수아동의 이해, 아동가족,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공부의 끝이란 있을 수가 없고 배우면서 내 아이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다른 분야를 다시 알아보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갔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배웠던 과목들을 학점은행제에 등록해서 대학원으로 받을 넓혀 아동가족과 석사를 취득했고, 국가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 보조 관련 등 많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나처럼 어려움만 가득한 사람에게 공부를 통해서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는 나와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버팀목이 되었다. 배운 공부들을 활용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이의 능력을 찾아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밀어주고, 더 잘 케어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좌절했을 때, 평생교육바우처라는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났고, 배움이 주는 값진 귀한 경험과 설렘으로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아이를 위해 더 마음 쓰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



*



*



우수상

기회의 가치

이00

내게 취미나 특기를 갖는다는 건 고요한 일상을 깨는 일탈 같은 것이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무언가를 배워야 할 때면 항상 나는 효율성을 따지기 바빴다.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적은 급여로 생활하는 내게,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배움은 사치나 허영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기획 작업은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다. 간단히 포토샵을 다루고, 상품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다. 해외구매대행업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외국 거래처와 가끔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있긴 했지만, 인터넷 번역기를 쓰면 되는 간단한 대화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업무 경험이 쌓여갈수록 번역기로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사소한 일상 대화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시기도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업무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거래처 외국인들이 보내는 간단한 농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적당한 월급을 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내게 배움은 에베레스트산의 위엄 앞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돌아서는 등산가의 뒷모습 같은 것이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할 때면 언제나 실패나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퇴근 후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OTT 드라마 시리즈를 보는 게 취미의 전부이던 내게 비용까지 들이며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자기계발은 미지의 두려움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하릴없이 유튜브 영상들을 스크롤하며 얼마 되지 않는 여가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 무기력하게 짧은 영상들을 돌려보던 나는 평소와는 다른 알고리즘에 이끌려 복지제도 소개 관련 채널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평생교육바우처'를 추천하는 영상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가구에게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권하는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나를 사로잡은 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문구였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망설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바우처 신청 절차는 간단했으며,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소득기준 안에 드는 계층이라면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무언가를 도전**

하기에 앞서 들어갈 비용을 접치고,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일들에 겁먹던 나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었다.

2월이 되고 소득 기준이 충족된 나는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기관은 지역, 강좌유형으로 나뉘어 선택의 폭이 넓었고, 나는 큰 고민 없이 외국어 강좌부터 찾았다. 강좌는 오프라인/온라인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불규칙한 업무를 소화하는 내겐 규칙적인 출석이 중요한 오프라인보단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더 적절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기간이 지나서도 1년 동안 강의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외국어에 서툰 내겐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수업신청 이틀 후 집으로 수업관련 교재들이 배송되었고, 곧바로 나는 수강을 시작했다. 업무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내겐 꽤 낯선 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에 쫓겨 다니던 단과학원에서 배웠던 영어와는 확실히 달랐다. 수업은 기초적인 언어의 이해부터 시작해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지 않고도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뤄졌는데, 내가 늘 두려워하던 암기의 압박보다는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보다 마음이 편하고 재미있었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접속하는 온라인 강좌는 원할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기에 많은 시간 투자 없이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톡톡히 수업을 들었다.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던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에 괜히 버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게 꽤 자부심 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언어를 공부하면서 내겐 없던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언어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영어 울렁증은 나를 칭하는 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언어란 내게 언젠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였지만, 쉽게 범접하지 못할 먼 미래의 이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거울 속엔 실용적인 것만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족한 어른이 서 있었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신감'이었기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여전히 난 고군분투 중이지만, 전과는 다른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작지만 소중한 자신감을 안고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보는 중이다. 영어라는 작은 목표도 아직 완주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큰 회사에 가기 위해 영어와 더불어 관련 자격증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배움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기회가 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되길 바란다.

우수상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 평생교육바우처로 새로운 기회를 얻다.

이다인

학창 시절, 배우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던 연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기를 배웠고, 한 번에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만 해왔던 터라 '배우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하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고 싶은 직업도, 배우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로 무작정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취업할 때 도움 된다는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는 생각보다 지겹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제게 커다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독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서울로 올라와 아르바이트하며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비싼 학원비까지 추가로 내는 건 무리였습니다. 유튜브나 무료 강의를 들으며 관심 있는 분야들을 독학하던 중, 평생교육바우처를 알게 됐습니다. 교육비 35만 원을 지원해주는 데 우수이용자에겐 한 번 더 지원해주다니, 보자마자 "이거다!" 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을 받으면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영역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교육에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망설임 없이 원하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몇 달간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동시에 웹 디자인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웹 디자인 일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웹 퍼블리싱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웹 퍼블리싱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웹 퍼블리싱 공부를 하면서 말로만 듣던 코딩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코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금방 코딩에 재미를 느끼게 되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뎠을 때처럼 이런저런 고민이 뭉게뭉게 피어났습니다. ‘코딩 공부를 더 해도 될까? 지금부터 독학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닐까?’ 걱정으로 가득할 때, 정말 운 좋게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로 추가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재충전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인프런에서 코딩 강의를 결제해 더 심화적인 코딩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매일 새롭고 즐겁습니다. 운 좋게 뽑힌 만큼 다른 사람의 기회를 헛되이 없애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배우고 싶은 건 많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저에게 평생교육바우처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도전의 두려움도 없애주었습니다. ‘컴퓨터, 코딩, 보육교사.’ 이 단어들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코딩도 배우고 보육교사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보육교사 또는 개발자가 되어있는 미래의 모습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제가 지금의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미래에도 저는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새로운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



*



*



너 덕분이야. 평생교육바우처

조정화

‘카톡카톡’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린다. 요 몇 년 가장 가깝게 지낸 지인의 전화다. “자기야! 평생교육바우처라고 알아? 내가 카톡 보냈으니 신청해~~~”

평생교육바우처? 그게 뭐지? 칠삭둥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장애를 가진 둘째를 키우면서 나름 정보에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평생교육바우처는 처음 들어본다. 평생교육바우처란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지원금액이 35만원이란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던 말인가? 4, 5년 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제야 알다니. 일찍 알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해준 지인에 무한히 감사하다.

사실 둘째가 발달장애인이라 만2세부터 복지관으로 센터로 치료를 많이 다녔다. 지금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돈을 지불하며 배운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못하고 살았다. 아픈 둘째의 치료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치료비로도 부담이 큰 형편에 더더욱 나를 위한 투자는 힘들었다.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접수를 하고 발표일만 기다렸다.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조건은 좀 유리했어도 꼭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득했다.

기다리는 며칠 동안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기관을 검색해 보았다. 둘째 케어로 나의 사생활은 많이 접고 살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바우처가 선정이 되면 갱년기로 인해 뱃살도 많이 나오고 고혈압 진단계라고도 하고 어깨 통증도 고질병이 되었으니 운동을 해볼까? 아니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꽃꽂이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 아니면 자격증을 준비해 볼까? 상상만으로도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서류 접수하고 한달이 조금 지났으려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귀하께서 신청하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추첨결과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바우처 금액 350,000원 -’

“야호!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정보를 공유해준 지인에 전화를 걸었다. 지인은 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다. 지인도 올해 처음 신청한 상황인데 형편이 우리보다 더 괜찮아 선정이 안 된 듯하다. 오히려 정보를 받은 나만 선정이 되어 지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지인은 진심으로 축하의 말도 전했다. 같은 장애 자녀를 키우며 알게 된 지인은 기쁘고 슬픈 일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사이다. 정보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고 동지애로 함께 하는 친구이다.

평생교육바우처에도 선정되었겠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곳을 찾아보았다. 시간적으로 많이 자유롭지 못한 형편에서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꽃꽂이 등 다양한 수업을 하는 곳이 있었다.

방문하여 꽃꽂이 수업으로 정하고 수업시간도 정하였다. 다행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 믿음도 더 생기고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의 수업으로 꽃꽂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35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자격증반을 하기엔 부족해서 취미반으로 수업을 하였다.

취미반이지만 원장님은 기초이론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1:1로 꽃꽂이에 처음인 사람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다. 꽃 사는 것을 제일 아까운 것으로 여겼던 내가, 겨우 아이들 졸업 때나 사 본 꽃다발이 전부인 내가 이렇게 수많은 꽃에 둘러 싸여 꽃꽂이를 하고 있다니. 발달장애아 둘째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두어 시간의 수업은 언제 끝날 때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처음 접하는 꽃꽂이인데 원장님의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아, 나에게도 이런 재주가 있었나?

1타임 2시간 동안 작품을 2개 만들었다. 예쁜 꽃과 함께하니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행복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타원형 모양으로도 만들고 원형으로도 만들고 높이를 일정하게도 하고 다르게도 하며 변화도 주고, 내가 한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예쁜 꽃꽂이 하나는 시댁에 선물했다. 여든 가까운 시어머님도 머느리가 손수 만든 꽃바구니에 네가 한 것 맞냐며 무척 행복해하시며 고마워하셨다.

원예치료수업에서 가져온 화분 몇 개가 전부인 우리 집에도 화사한 꽃바구니를 두니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꽃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았던 남편도 예쁘다며 한마디 톡 던진다. 식탁 위에도 놔 보고 거실장 위에도 놓고, 꽃꽂이인지라 매일 물을 준다 해도 오래는 못 가서 아쉬웠지만,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 드라이플라워 처럼 그대로 말렸더니 생화의 화사함은 없어졌지만 그 나름의 색깔과 형태는 남아있어 오래 볼 수 있어 좋았다.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꽃꽂이를 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마음 쉴 곳을 찾고 그 덕에 둘째를 더 잘 케어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지 않았나 싶다.

지난 8월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수이용자로 또 선정되었다. 둘째 전신마취 치과치료 등 시간 내기가 어려워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미싱을 배워볼까 생각중이다. 그래서 간단한 수선 등을 직접 해보며 수선집에 지불해야 할 금액도 아껴야겠다.

나는 평생교육바우처 전도사이다. 지인이 나에게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려줬듯이 나도 주위에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덕분에 양금 플라워를 배워 선물을 해 준 분도 계시고 요가를 시작했는데 평생교육바우처 금액 모두 소진하고 자부담 내며 계속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이 밤, 미싱 앞에 앉아 있는 나를 상상해 본다.

늦깎이 취업준비생

최OO

나이 58세면 은퇴를 준비할 시기인데 집안 사정으로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자격증도 하나 없고 너무 막막했다. 자격증부터 준비해야 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아 2021년 평생교육사 2급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고, 다음 해를 기다려야 했다.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았다.

실제로 취업전선에 나서보니 자격증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부랴부랴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했다. 취업에 대해 간절함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게 했다. 그러나 수강료가 부담되어 다른 공부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다.

2022년 알림 문자가 왔다.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다리던 카드를 받았는데 바로 쓰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다. 내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싶었다.

어떤 것을 배울지 찾던 중에 삶을 의미있게 보내며 생의 마감 준비를 돕는(일명 웰다잉) 강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품위있고 존엄한 생의 마감에 대한 이해 및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에 평생교육바우처로 바로 결제했다. 아무리 하고 싶고, 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도 평생교육바우처가 없었으면 30만 원이라는 거액에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총 30시간 교육받았다. 퇴근 직후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주중 이틀은 3시간씩 꼬박 앉아 수업을 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웰다잉에 대한 호기심으로 열심히 들었다. 웰다잉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진정한 웰다잉(Well Dying)은 웰리빙(Well Living)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생의 마감 준비를 돕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막연함 속에만 있던 '죽음과 잘 죽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 위기의 청소년-중년-노년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힘쓰고 싶다.

난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중에는 그림책도 포함된다. 그림책 지도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다. 형편상 하지 못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조금이지만 평생교육바우처도 남아있었다. 잔액으로 결제하고, 소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시니어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하며, 그림책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수업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내리 15시간 강의를 들었지만 수업하는 내내 신이 났다. 작고 어설프지만, 그림책도 직접 만들고, 줄거리도 원작과 다르게 써보았다. 모든 활동이 재미 있었다. 빨리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여 어느덧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2년 9월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로 선정되었다. 화수분처럼 교육비가 재충전 되었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일까? 이번엔 뭘 배울까?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본다. 컴퓨터 자격증을 딸까? 특기를 살릴까? 취미 가져볼까? 궁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까지 부려 본다. 거부(巨富)가 된 느낌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컴퓨터를 배워야지.'

2022년 4월 취업이 되었다. 그런데 11월이면 8개월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또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 처음 취업전선에 나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이력서에 3개의 자격증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빈칸이 많이 줄어, 비어있던 탄창에 총알이 가득해진 느낌이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자격증인 컴퓨터 활용 자격증까지 따게 되면,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까지 든다. 평생교육바우처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뚫 수 있게 도약대가 되어 주었다.

취업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으니,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머지않아 은퇴할 때가 온다. 은퇴 후에는 강사를 하고 싶다. 생의 마감 준비를 도우며 삶에 지친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주고, 또, 그림책 만들기를 하며 시니어들과 그림책도 읽고, 만들고, 마음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괴테가 말했다. 평생교육바우처로 인하여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알게 되어 자격증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지인들에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



*



*



관광통역안내사를 향한 나의 첫 걸음

한진주

안녕하세요. 현재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는 한진주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입니다.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네명의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에 이어 이제는 학생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동안 육아만 했었고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도 잘 알지 못해서 집 밖에는 혼자 다니기가 불안했습니다. 집 밖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선생님께서 “이주민사회적협동조합” 단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검정 고시라는 과정이 있는데 한국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직 한국말이 서툰데.’ 막막했습니다. 전 용기를 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내용을 알면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등과정을 시작으로 중등, 고등과정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이주민학교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면 공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 하고 신청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중이어서 막상 기회를 얻었지만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중언어가 필요한 관광통역사 과정이 이 카드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너무 좋은 기회들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공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원, 법규, 관광학개론, 한국 역사 등 한국에 대해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역사는 많이 잊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역사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관광의 전문용어들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명승지, 고적지 등의 관광지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관광지, 역사에 대한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광 통역안내사는 매력적이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건 쉬운 시험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한국 역사가 어려워서 시험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생교육바우처카드에서 한 번 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는 영어공부에 도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 4명을 키우는데 저에게 돈을 써서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바우처 카드로 일주일에 두 번씩 줌(zoom)으로 영어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광통역사를 준비할 때도 베트남어를 통역하는 통역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영어를 배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지혜로 간단하지만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변을 찾아보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배워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능력을 개발 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은 다양성도 있고 세계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누구나 원하는 삶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혜택,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영어공부와 더불어 **내년에 다시 한 번 관광통역사에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합격하고 좋은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제 꿈을 이루었다고요~ 감사합니다.**



*



*



*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장려상

*** 권종립 ***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 김00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김00 ***

바우처~너~~덕분에
기분이가 up!~ up!~ up!~~~

*** 김00 ***

삶의 전환점이자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평생교육바우처

*** 김00 ***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 김미애 ***

어릴 적을 꿈을 이루고
자신감으로 재취업의 기회도 생겼습니다.

*** 김미용 ***

새장을 나간 새처럼

*** 김혜경 ***

평생교육바우처로 문화센터등록하고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 이00 ***

새로운 희망을 위한
부부의 평생교육 도전

*** 이00 ***

나를 배우다

*** 이동근 ***

60대의 인생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

*** 이인석 ***

어느덧 중년이 되어 버린 나의 나이,
중년의 꿈 개척을 도와준 나의 평생교육바우처

*** 이지은 ***

희망은 흘러간다.

*** 정00 ***

57세의 컴맹탈출

*** 조00 ***

내 청춘을 즐길 수 있는 기회

*** 최00 ***

평생교육바우처가 가르쳐 준
빛나는 중년의 삶

*** 황지혜 ***

꿈은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것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권종림

먼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상담에 필요한 꼭 들어야 할 교육에 대한 교육비로 어려움을 겪던 중 처음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해 수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니 마치도 장학금을 받는 듯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간절히 수강카드가 발급되길 바라며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연락이 왔습니다. 막상 카드를 받고 제가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을 찾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해당 강좌가 열리는 기관을 하나 찾아 상담에 꼭 필요했던 교육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과목을 이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룻밤을 찾고 또 찾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로하신 친정어머니를 돌보드릴 때 필요한 자격증이 될 것 같았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선택했습니다. 부족한 수강비를 더해 접수하고 아간 3개월 긴 시간 동안 더위와 피곤함도 잊은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또는 누군가 필요한 분에게 요양보호사로서 해야 할 다양한 지식을 배우지만 먼저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10월 7일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받고 지금 취업을 기다리며 새로운 길로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견이라도 한 듯 그사이 친정어머니는 사고로 고관절 골절과 좌측편마비로 거동 불가능 환자가 되어 요양병원에 입원 하게 되어 12월에 받을 등급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는 병원에서 친정어머니를 간호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학기 교육비를 모두 사용하고 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 신청을 하여 2학기에도 감사하게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교육비 감당이 어려워 잊어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삐죽 삐죽 뚫고 올라왔습니다. 먼저는 컴퓨터 관련하여 배우고 싶었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는 교육기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 기관도 찾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30년도 더 넘게 눌러 두었던 '드림 배우기'를 수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능하기는 할까? 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기관을 찾았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등록을 마치고 돌아올 때 설레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드럼 초보이지만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고향의 봄' 노래 드럼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제가 드럼연주를 한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오른손만 사용했었는데 서툴게 왼손과 두 발까지 사용하다 보니 치매예방에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 더 감사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박자를 놓치는 것을 보면서 집중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달려가 연습하고 싶지만 학원 사정상 일주일에 두세 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럼을 배우면 배울수록 삶의 활력이 되고, 드럼배우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부에서 배려한 이런 배움의 기회를 통해 늘 잔잔한 우울감으로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활기찬 시간으로 채워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의 기회를 얻게 돼 자신감이 생겼으며 드럼 배우기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어 요즘은 사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필요한 이들에게 저의 이 기쁨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



*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김OO

코로나로 사람 만나는 것과 야외 활동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온라인수업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관심을 가졌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돈을 들여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은 들쭉날쭉한 얼마 안 되는 벌이로 살며 경제적으로 힘든 내게는 왠지 사치 같기도 했다. 그래서 주로 생각해 낸 것들이 과일 씨앗 발아시키기 같은 돈 들지 않는 것들만 찾곤 했다. 취미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돈을 안 써도 되는 곳에 쓰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활력을 주는 일이 생겼다. 그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된 건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이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전에는 유튜버들의 그림 그리는 영상만 보곤 했는데 지금은 갖고 싶던 미술 재료를 갖추고 툼툼이 그림을 그린다. 어려서부터 학원 한 번을 다녀 본 경험이 없던터라 무엇이든 독학으로 배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혼자 힘으로 터득하고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그런데 40대 후반이 되도록 학교 말고는 늘 혼자 해서 그런지 어느 때부터인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 말고 말 그대로 누군가로부터 배움이라는 걸 받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뭔가를 배우다면 늘 그림을 한 번 배워보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입 밖으로 꺼내 본 적은 없었다. 어른이 되면 막연하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는 데 바쁘고 형편이 좋지 못한 생활환경에 취미 생활을 시간과 돈을 들이는 건 언제나 가장 나중이었다. 배워볼까 하다가도 비싼 학원비를 보고 놀라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신청하고 지원받게 돼 난생처음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때가 한참 미술재료 딱히 없어도 노트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디지털 드로잉에 관심이 많을 때였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마우스 대신 판 태블릿을 큰맘 먹고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고, 유튜브로 배우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답답하던 차에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받게 되게 된 것이었다. 바우처 덕분에 제대로 시작하게 된 디지털 드로잉.

평생교육바우처로 디지털 드로잉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었다. 내가 살고있는 곳이 외쳐서 가는 데만 거의 2시간 거리였지만 나는 전화로 문의하고 곧장 찾아가서 바로 학원을 등록했다. 월 배우겠다고

학원에 앉아 있던 그 낯선 설렘에 참 기분이 오묘했던 생각이 난다. 거리가 멀어 매일 가지는 못하고 주말 반으로 그렇게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다. 평생 태어나서 처음 학교가 아닌 곳에서 뭔가를 배워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첫날, 그 수업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같은 반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모두 10대나 20대, 새로 등록한 사람은 없어 보였고 다들 그림에 집중하여 그리고 있었다.

첫 수업의 설렘과 함께 내게 그려보라고 준 그림 하나를 혼자서 열심히 따라 보고 그리는 것으로 딸자식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늘 후딱 지나가곤 했다. 학원에서 다 그리지 못한 그림은 집에 와서 밤새 그리고는 했다. 시간이 2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 집에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4시간가량 소요되었는데 오고 가는 긴 시간도 학원에서 배우는 것을 생각하면 참 벅찼던 것 같다. 배운 것으로 호수에 사는 친구 가족사진을 그림엽서로 만들어 선물을 했는데, 그 그림엽서를 받은 친구가 엽서를 액자에 끼워 딸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보낸 것을 보고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평생교육바우처 금액이 조금 남아있기에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어 자비를 조금 보태어 펜 드로잉도 신청했다. 내가 여행하고 방문하는 곳을 펜 하나로 앉아서 쓱쓱 그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로 감사하게도 또 같은 금액을 더 지원받게 되어 아크릴 수업도 신청했다. 사실 제일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크릴 그림이었는데 재료 장만으로 늘 망설였었다. 하지만 평생교육바우처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한 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어 재료를 장만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점이 지원금으로 수강료를 내는 것은 물론 교재비, 재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강의 영상을 틀어 하루 종일 어색하게 그림 그렸던 시간, 그림은 부족했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재미있었던 건지, 늘 ‘아- 재미있다’를 몇 번이고 행복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시간이었다.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기까지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싶지만 아마 평생교육바우처로 지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에 망설이며 내게 적당한 강의를 고른다고 이것저것 보다가 보는 것으로만 그쳤을지도 모른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을 다 쓰고 나서 아쉽다 싶었는데 또 우수자로 선정해 주어 다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또 한 번만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좀 더 잘하게 되면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린 내 그림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만든다는 곳즈도 만들어 보고 싶다. 날 좋은 주말에 어딜 나가 그린 펜그림과 잘 그린 아크릴화로 혼자 사는 적극적인 방 한쪽 벽면이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그림으로 여러 강의를 들으며 배움을 실천하고 즐거움을 맛보는 중이다. 이런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 미루느라 모르고 있었던 내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평생교육바우처 제도가 너무 고맙다.

장려상

바우처~너~~덕분에 기분이 up!~ up!~ up!~~~

김OO

2019년 하반기 평생교육바우처와 처음 인연이 닿았다. 바우처사업의 목적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감사했다. 들뜬 마음으로 은행으로 달려가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배우고 싶었던 과목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검색하는 것이 섰었다.

취미로 배우고 싶은 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과목들도 많았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기념으로 남길만한 자격증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두렵기도 했다. 운전면허 취득 후 26년 만에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라. 성공에 익숙해지면 무슨 목표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카네기의 명언을 떠올리며, 도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바리스타 반을 선택하였다.

수강생들과 모둠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가 되었고 커피와도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해 고2 사춘기 아들, 고3 수험생 딸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에 커피와의 만남은 나에게 탈출구가 되었다. 이론 수업을 하고 실습으로 커피를 추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몸은 커피 향으로 배어있었다. 그때 그 커피 향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급 향수였고 효과 빠른 아로마 테라피였다. 그렇게 커피 향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커피를 좋아하는 사춘기 아들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이론 책을 뒤적이며 커피에 관한 이런저런 것을 묻기 시작했고, 자신도 졸업하면 꼭 커피 제조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라며 책을 깨끗이 사용하라고 무심하게 진담 같은 농담을 했다. 나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에게 예상문제를 출제 해보라고 했고 만점을 받으면 용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아들과 공부한 덕분에 필기시험 만점을 받았다. 실기시험 당시 검정색 단화를 신어야 했는데 나에게 낮은 굽이라곤 보라색 펌프스 밖에 없었기에 고민 중이었다. 신이 난 아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천 원짜리 락카를 사 와서는 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감쪽같이 검정색 단화로 변신한 구두를 보니 신기해서 웃음이 터졌고 아들의 아이디어에 엄지를 세우며 용돈으로 마무리 했지만, 나와 아들 사이에도 은은한 커피 테라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커피 제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자격증뿐만 아니라 아들과의 사이도 좋게 만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다. 아니 일거 아들 덕이었다고 해야겠다.

나에게 작은 성공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덤으로 가장 값진 아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준 고마운 자격증!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평생교육바우처는 나에게 인연으로 다가와 은인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감사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은인과는 잠시 이별을 했다. 코로나로 폐강된 수업들이 많았고 배우고 싶은 곳은 바우처 사용기관이 아닌 곳도 많았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인은 2022년 또다시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이에 보답하고자 두 번째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아동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아들과 갈등이 심할 때 심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 심리에 관심이 생겼고 현재 아동 돌봄서비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다.

하지만, 첫 수업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여느 수업들처럼 교재로 이론부터 배우는 줄 알았는데 웬걸. 아니었다. 큰 책상 위에는 연필 한 자루, A4용지, 그리고 갑 티슈가 전부였다. 마치 영화에서 본 취조 받는 느낌이었을까? 정확했다. 잠시 후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백을 하는 죄인처럼 눈물, 콧물 흘리며 나의 치부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다. 심지어 자격증이고 뭐고, 다음 수업부터 그만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처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강사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티슈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 모을 때마다 내 마음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처럼 치부들은 모두 흘러가 버리고 맑은 하늘만이 남아있었다. 참 신기했다. 그 순간 나는 나를 알아버렸다. 내가 나를 얼마나 돌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도 말이다. 무엇을 배운다는 게 단지 지식만은 습득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된다는 것에 감사했다. 치유와 감동, 그리고 자격증까지 이번엔 일거삼(三)득이다.

이제 나의 내면은 알았고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선 나의 육체도 돌봐야 했기에 남은 바우처 잔액으로 요가를 등록했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나인데, 줌바댄스가 폐강되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요가였다. 그런데 이 선택 또한 반전 매력이 있었다. 명상이나 하고 정적인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 싶었지만, 이번엔 나의 육체, 즉, 몸을 알아버렸다. 뒤틀어진 골반, 불규칙한 호흡, 유연성 부족, 물론 과체중은 패스~ 정말 처참했다. 민망하게만 보이던 레깅스 족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힘겹게 들어 올려야만 하는 다리, 상체를 못 버티는 팔... 그렇게 꿀렁이다 보면 몸에서 땀이 나는 게 신기했다. 마무리 명상시간에는 49년 동안 함께 해주고 고장 나지 않은 고마운 내 몸에게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 토닥이게 되었다.

취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심리공부에서 나의 내면을 찾았고,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요가로 심신을 단련했고, 못하던 동작을 하게 된 나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 누군가의 세금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지금까지 모든 수업에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수강했다. 그런 나 자신에게도 칭찬의 의미로 화사한 요가 매트를 선물했다. 다음엔 레깅스~기대해^^

이 모든 것은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이다. 교육의 기회는 물론이고 배움의 즐거움과 이런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기분이 UP!~ UP!~ UP!~ 고맙다! 평생교육바우처야~ 열린 취업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의 씨앗이 되어볼게~

참~그때 그 사춘기 아들은 지금 군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지난주 국가자격증인 한식조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준비 중이라고 한다. 기특한 녀석, 실기시험을 응원하며 오늘도 엄마는 너와의 추억을 저장한다. 이젠 두렵지가 않다. 나는 이 세상 유일하니까. 반세기를 마무리하는 나는 이렇게 UP! 되었다. 남은 반세기는 더 감동과 사랑으로 UP! 사랑한다~나!

삶의 전환점이자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준 고마운 평생교육바우처

김OO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쉽게 취업에 성공할 줄 알았고, 대학생 때는 대학원까지만 졸업하면 내 앞에 닥친 모든 일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학업을 위해 홀로 자취를 시작했을 땐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곧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도, 완전한 사회인도 아닌 처지에 매 학기 등록금은 너무 비쌌고 월세, 공과금, 교통비, 식비 등 돈이 들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늘 학과 성적과 포트폴리오에 예민해야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에, 타지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던 저에게 내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를 배우고 싶단 생각은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타인과 자꾸 비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없는 저는 자꾸만 뒤처지고 위축돼 갔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결심했을 무렵,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지 않을까 찾게 되었고, '평생교육바우처'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양한 지원은 모두 감사한 일이지만, 특히 평생교육바우처가 와 닿았던 부분은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로 한정되는 지원금의 사용처였습니다. 아마 교육을 위한 제한이 없었다면 생계유지도 급급한 저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본능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이번만큼은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한번쯤 상을 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양심의 가책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35만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데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흥미와 발전을 함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집 근처에서 운영되는 요리학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에 잠식된 직장인이자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저 또한 근무가 어려울 정도의 원인모를 속쓰림과 울렁증, 자반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과 조직검사를 받았음에도 이유불명확과 함께 몇 달치의 약을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통증도 괴로웠지만 직장도, 일상생활도 힘들어 견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2년 넘는 긴 시간동안 복용한 약들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 더 이상 약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짓도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건강한 신체라는 것을 깨달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다듬는 방법부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까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요리 수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원데이 클래스부터 기초 취미반, 한식, 일식, 중식 등 전문을 요하는 자격증 반까지 다양했는데, 원에서 추천하는 취미반이 아닌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증 반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함께 수업 받는 학우들이 여러 자격증을 지닌 요리전공자들에게도 재료비와 수업비도 사비로 추가 결제해야 할 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걱정되었지만, 제대로만 배운다면 한식을 즐기는 우리 가족에게도 멋진 선물을 선사할 수 있던 생각에 도리어 설레고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리를 즐기거나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재료를 다듬고 뜨거운 화구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매 수업마다 시간을 재어 테스트하고, 음식의 향과 풍미, 색감과 위생관리 등을 평가하는 과정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요리도구를 다루는 자연스러운 손놀림에 스스로가 놀라웠고, 하나의 작품처럼 시각적 아름다움을 뽐내는 완성된 결과물에 즐거움이 일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 할 즈음엔 자격증 응시와 함께 제2전공으로 계속 배워나가고 좋을 것 같다는 강사선생님과 학우들의 칭찬과 격려에 뿌듯해지기도 하고 자긍심도 생겼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적 변화는 저를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건강한 습관과 튼튼한 신체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 모습은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나아가 친척, 친구들, 주변지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늘 과하게 말라 걱정되던 동생과 연세 들어 성한 곳이 없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가 만든 건강한 음식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손질하다 보니 믿을 수 있고, 기성 제품이나 배달음식처럼 자극적이거나 기름지지 않아 건강을 해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간염보균자라 식습관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한식을 배우으로써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음식을 정하고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출 수 있어 요리해 먹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음식은 거들떠보지 않던 동생이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 할 때, 아버지께서 맛있다고 활짝 웃으실 때, 늘 저를 걱정하던 어머니께서 스스로 음식을 할 줄 알게 돼 기쁘며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어 한시를 걱정을 덜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음식에 관한 기본기가 있다 보니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요리는 스스로 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매끼 가족들 식사를 챙기느라 고생 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금은 두부요리와 오징어 볶음처럼 간단한 가정식 부터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더덕요리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며, 함께 뜻 깊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하반기 우수 이용자로 다시 한 번 선정되어 지금은 집에서 조금 먼 곳까지 가족공예 수업을 들으며 다닙니다. 언젠가 멋진 공간을 마련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싶은 꿈을 가진 저에게, 현재의 경험은 수업의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기회를 찾거나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값진 순간이 또 찾아온 만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다듬어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는 알찬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삶에 오롯이 매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바우처야, 너무고마워)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며

김OO

일반적으로 50을 넘긴 사람들은 삶의 후반기를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휴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이들의 독립을 준비하며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여가를 즐기며 하고 싶었던 취미를 다시 배운다든지 친구들과의 여행을 간다든지 힘든 삶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전우애로 긴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와 삶의 후반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자 할 것이다. 나의 삶의 전반전은 어떠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예쁜 아이도 얻었다.

그러나 둘째가 선천적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오로지 내 삶의 목표는 이 아이를 온전히 길러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이의 교육에만 매달려 아이와 같이 초등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으며 함께 고등학교 교과를 공부했다. 학습해야 할 문제집을 만들고 모의고사를 타이핑하고 학교 과제물을 정리하고 학습지를 타이핑했다. 그러는 동안 집의 경제적인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인 것은 무시했다. 다른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아이를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나는 경력 단절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나를 장애아의 부모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의외라는 듯 반응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알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지 않았다. 나에게조차 나는 그저 장애아의 부모일 뿐이었다. 나는 남들보다 열등해야 했고 남의 말에 주눅 들어야 했으며 그저 감사해야 하는 존재여야 했다. 아이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처음 한두 달은 거의 20년 만에 찾아온 휴식시간으로 보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온통 아이에게 매달려 있던 나의 하루는 이제 낮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제대로 신경 써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 후반기,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대로 늙어가기에는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다. 아이와 함께 갔던 복지관! 장애 판정을 받고 막막했던 별판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준 곳. 그 곳에서 이제는 방황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다른 아이, 다른 부모들을 위한 일을 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었다.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알게 되었다. 이전에도 한번 사회복지사를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도 어렸고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있어서 포기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이고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생겼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고 학점은행제 등록도 하고 바우처 선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선정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하고 1학기 등록을 시작했다. 근 30년 만에 시작하는 공부는 이과인 전공과 다른 데다 온통 이해되지 않는 글자들의 나열과도 같았다.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와 닿지 않는 생소한 복지 관련 개념들 아무리 봐도 같은 단어의 나열인데 다 다른 의미이고 다른 해석을 하는 비슷비슷한 문장들 쉽지 않았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강의와 과제와 토론과 시험들은 만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으며 하나씩 하나씩 성과가 쌓여갔다. 다행히도 1학기가 무사히 지나갔고 대학 때에도 받아보지 못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아, 그래... 나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었지.

가슴 아픈 신문기사를 보았다. 보호를 종료한, 대학에 입학한 한 시설보호 아이의 죽음. 둘째처럼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아이의 슬픔과 막막함과 고단했을 삶, 모두가 집으로 떠난 교정에 혼자 남아 갈 곳이 없었던 아이. 그 아이의 아픔에 이입되어 몇 날을 앓았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소중하지만 이미 우리의 곁에 와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이다. 2학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내년 실습과 몇 개의 남은 과정들을 무사히 마쳐서 하루빨리 아이들 곁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



*



*



어릴 적을 꿈을 이루고 자신감으로 재취업의 기회도 생겼습니다.

김미애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들을 엄마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 두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여느 엄마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보다는 아이를 위주로, 내 취미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손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도 나의 삶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건지, 세상은 내가 육아를 하던 시간 동안 벌써 저만큼 앞서 나가 있는데 나만 경력이 단절돼 멀리 동떨어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평생교육바우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 저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생기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경력을 살리기 위해 컴퓨터 활용을 할까? 아니면 운전을 할까?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충주에 음악학원이 있는 것을 보고 전화했는데 좀 비싸서 다른 것은 못 배우고 기타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달을 망설인 끝에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에 악기를 배우고 싶어 잠시 학원을 다니긴 했었지만, 부모님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셔서 2달 만에 그만둔 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었던 터라 용기를 내 자녀와 함께 갔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아이가 배우려고 하는 줄 알고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셨지요.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나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제가 기타를 배우려고 해요.”라고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을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우처의 지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신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레슨 시간이 기다려지고, 집에서 기타를 치는데 아이들이 잘한다고 말해주어 더욱 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으로 하게 되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남편도 저에게 생기가 느껴진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다른 분들은 손에 힘을 많이 못 주는데 저는 손에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줌마라서 일을 하다 보니 손에 힘이 있네요.’ 라는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제가 지원비 외에는 수업할 수 없다고 하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달 동안 정말 배워야 할 기초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만큼 저도 빠르게 기타를 익혔던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잘 다룬다고 칭찬을 받는 건, 아마도 내 유전자의 힘이 보태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기타를 열심히, 빠르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지인들이 묵혀두었던 기타를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안방에 기타와 기타 가방을 보면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경력단절로 용기가 없던 저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 저는 취업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배운 것은 기타이지만 이것이 저에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전공을 살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 자격으로 다시 바우처가 되어서 이제는 운전을 배우려고 합니다. 늘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운전도 배우면 정말 다시 저의 삶이 새롭고 이제는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는 누군가가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저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이 공모전을 보면서 꼭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평생교육바우처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운전까지 하게 되면 더 넉넉하게 아이들의 학원비와 미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주위 분들에게 홍보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



*



*



새장을 나간 새처럼

김미용

저에게 평생교육바우처는 '새 삶의 창'이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커다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부모님의 암판정. 아버지께선 6개월도 못 되어 돌아가시고, 엄마께서는 암 수술후 우울증과 치매가 심해지셨지요. 저도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몸도 힘든데 믿고 의지하던 형제간에 가슴 아픈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에도 병이 들어 약이 더 늘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었는데 대인기피증까지 심해져 공황장애 약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카페에 가입하여 새로운 정보를 가끔 보던 차에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목이 있는 것을 클릭해 보니 제가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신청하였더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이 겁이나 집에만 있으니 계속 몸이 약해져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도 배우러 갈 수 있을까?** 홈페이지가 잘 되어있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을 검색해보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밥로스 유화 그리기와 요리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요리를 하며, 음식을 못 하는 제가 요리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음 그림이 궁금해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삶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다섯 작품의 그림을 그리며 더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수 이용자에 한해서 재충전이 지원된다는 문자를 받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아 문밖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미용실 다녀오기도 힘들어하셔서 제가 커트를 배워 엄마 머리를 깎아드려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 재충전이 되어 지금은 생활커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엄마 머리 컷도 해드리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년도에도 제게 평생교육바우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림 그리는 것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림은 그리는 것이지만 먼저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손에 의해 나의 것으로 그려집니다. 구름도 나무도 강도 하늘도... 그래서 좋습니다. 지나가는 구름도 다시 살펴보고, 나뭇가지 하나하나의 모양을 따라가 봅니다. 모든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과 다른 이의 그림을 보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바우처를 알기 전에는 월, 수, 금 한방 병원을 다니며 항암후유증을 치료하고 주말엔 부모님을 뵈러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생활 커트를 배우러 다니며 물감 몇 개와 붓을 사서 집에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내 몸이 새장을 나간 새처럼 문밖으로 나왔듯이, 마음 한 구석에 갇혀있는 나의 병들도 그림으로 그려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병을 약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배움으로 점차 회복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별도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저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



*



*



장려상

평생교육바우처로 문화센터등록하고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김혜경

2022년이 되면서 평생교육바우처로 사회복지사 자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4과목 이수를 하고 하반기가 되면서 우수사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35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난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용처에 문화센터가 있는걸 보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게 되었다. 주부로서 문화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다니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기에 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다고 맘을 먹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은 필라테스, 피아노, 벨리댄스 3과목이다. 지금도 수업을 듣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 가는 날을 즐겁게 생각하고 활력도 얻고 있다. 요가도 배운 적이 있어서 필라테스 수업은 정말 잘 맞게 배우고 있고 피아노는 정말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추석연휴가 끼어서 1번만 수업을 들은 상태고 난 선생님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ost를 연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내일 배우러 갈 예정이다. 3개월 안에 배워야 하는 피아노이기에 좋아하는 곡 하나 연주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조금씩 배울 것이다. 벨리댄스도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인데, 허리에 두르는 힙 스카프도 하나 장만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배우다보니 적성에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정말 즐겁다.

평소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기는 나에게 평생교육바우처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다. 인생의 하반기에 들어서는 나에게도 도전은 늘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 있어서 취미생활은 일과 함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고 몰두하고 집중 하면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한다.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인 듯하다. 자기비용 내면서 문화생활 하기에는 지출이 많은 요즘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정보가 빨라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주위에 많다.

상반기에는 온라인강의로 사회복지사과정을 들었다.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가 평생교육바우처로 공부를 할 수 있기에 얼른 신청하고 4과목을 이수했다. 하반기는 문화센터 강좌를 듣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남은 사회복지사 과목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전업의 기회도 되기도 하며
 나처럼 취미생활의 활용에도 가치가 있다. 10월부터는 영어회화도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다. 영어
 회화는 항상 잘하고 싶었던 것인데 비싼 어학원은 못가고 문화센터에서 마침 영어회화를 한다기에 등록했고
 10월부터 배울 예정인데 무척 설렌다. 이 기회에 기초영어회화를 배워서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잘 활용
 하고 싶다. 이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평생교육바우처 제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설레는 맘으로 수업을
 기다리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



*



*



새로운 희망을 위한 부부의 평생교육 도전

이00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장마가 끝나고 긴 시간 우리들을 괴롭히던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인 저희 부부는 화장실 수리와 타일 시공을 하는 일용직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이후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져 파산을 하게 된 저희 부부는 공사장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어려운 형편이라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신용과 경제적 빈곤에 처해 회사생활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시간을 아껴 배우는 길만이 힘겨운 노동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고난과 피곤함은 늘 우리의 꿈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네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소득이 일정치 않아 어렵게 살아오던 저희 부부는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정부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활해나가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12살이 되었고 저희도 이제는 5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용역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여기저기 몸도 아픈 곳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룬 상처와 통증들이 이제 오십견, 목 디스크, 허리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병들이 되어 저희를 괴롭히고 있어 많은 작업을 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감도 많이 줄어들던 2021년 저희 부부는 이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몸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같이 선정되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가족공예라는 교육을 정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같이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과 배움을 병행하니 처음에는 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운 강의는 집에서 재료를 구해 한 번 더 연습을 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복습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하였고 선정이 되어 수강을 이어갔고 좀 더 늘어난 실력으로 좀 더 높은 난이도의 가방을 만들어가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에 선정이 되어 한 번 더 수강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0월 후반부터 수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의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만들고 판매할 날을 기대하며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의 일은 조금 덜 고되며 조금 덜 힘겹습니다.

내년도, 내후년도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열심히 계획대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몇 해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배움은 저희가 지금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저희 부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이며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런 희망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바우처가 좀 더 폭넓게 지원되어 저희가 꿈꾸는 날들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게 오랜 시간 지원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상황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체험하여 모두가 희망적인 삶을 꿈꾸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



나를 배우다

이00

스물셋, 이십대의 당찬 기세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전선에 곧바로 뛰어들었던 나. 정신 없는 사회생활 속에 점차 사회의 쓴 맛을 느껴가며 하루 벌어 하루 겨우 사는 나날을 보내고 곧이어 저에겐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권태기를 이겨내야만 진정한 어른이 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쓰디쓴 채찍질을 건디며 아침마다 눈 뜰 때면 오늘은 제발 평화롭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한 뒤,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운명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나'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 '새댁', 누군가의 '엄마',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호칭이 늘어날수록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름도 하루하루 살다보니 점차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하루는 늘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분주한 날들 속에 내 정체성은 '전업주부'라는 이름에 갇혀 나를 잃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여러 경로로 직업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시절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내 처지로는 근무환경,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전공이나 경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수차례 새로운 직업에 대해 좌절을 겪은 뒤 나의 성향,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성과 맞는 일,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 등 여러 조건에 맞춰 찾아 보니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평범한 주부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에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불안정했던 20대의 나', '가족 안의 나'가 아닌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나'로 세 번째 인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보자!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하며 배움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치솟았지만 배움에도 비용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 관문 또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평생교육바우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한 줄기의 빛,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은 통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선정되었다는 연락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수강신청을 하고, 벅찬 기대감으로 수강 일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여러차례 통과해야만 했던 내 일상에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강하고 훌륭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나'는 주부로, 엄마로, 늦깎이 학생으로의 시간들을 보내며 또 다른 '나', '보육교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너무 희망차고 설레며 학기를 마치고, 보육교사의 마지막 관문인 '보육실습'까지 마쳤습니다.

실습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실습교수님의 말씀처럼 현장은 이론과는 다름을 깨닫고 현장에선 더욱 전문적 스킬을 배워가며 보육교사로서의 인생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하던 중 '장애영유아'라는 과목을 알게 되었고, '장애영유아'도 취득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로 영유아들의 마음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평생교육bauer'의 도움을 받아 '장애영유아' 과정도 취득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목들은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 과정들이 피가 되고 땀이 되어 언젠가는 나에게 빛이 되어줄 그 순간을 바라며 배움의 손을 끝까지 잡고 동행할 것입니다.

'20대 시절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언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전문적이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교사'라는 이름의 '나'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 '평생교육bauer'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금동아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은 자격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취업의 문턱을 넘어 또 다른 내 인생의 사회생활을 경험해야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임할 것이며, 주변의 누군가가 이전의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의 문을 열라고 조언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인생에 큰 나무가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 나무를 벗 삼아 늘 푸른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60대의 인생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

이동근

사람은 왜 배워야만 하는가? 나이가 들어서도 왜 배움을 놓지 말아야 하는가? 60대인 나는 왜 아직도 배움이 즐거운가?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지혜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혜의 깊이는 배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두뇌는 광범위한 사고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힘, 즉 지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배우고, 학습한 것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와 끈기를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지혜는 더욱더 생기고, 창조하는 일의 즐거움 그리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난 가정환경 으로 고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남들 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다는 열등감으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 심리학자 아德勒의 개인 심리학에서 열등감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젊은 날 난,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는 것이 내 전부일 만큼 책을 좋아했다. 주로 심리학, 종교학, 철학, 역사, 인문학 서적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나의 지인들은 60대 후반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 공부 한다는 것은 학창시절에 하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배움의 즐거움과는 또 다른 세계이다. 그래서 배우는 일, 그것은 한 마디로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며 내 전부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갈등을 느낄 때, 생각하는 힘이 생겨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심리학을 배우게 된 동기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마음의 이치와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싶어서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밤낮으로 공부하여 컴퓨터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매일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까지 터득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로 심리상담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작은 성취감을 가지고, 더 많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준 것과 동시에 60대의 나이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생겼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사상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주어 이 또한 기회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공부에 매진할 생각이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불교에서 공의 사상,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를 완성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나라는 자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에너지이고, 물질은 만들어낸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나이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인생의 목표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그런데 무엇이랴도 배우게 된다면 정신적 가치와 배움의 희열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불굴의 정신으로 학문의 열정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다짐한다. 물질적 풍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 가치의 풍요함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 할지언정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더 배움에 정진하여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인생에 대해 더 많은 그리고 끝없는 배움을 통하여 얻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며 보탬이 되고 싶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며 배우는 것은 곧 기쁨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배우려고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짧으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 되겠지만 남은 세월들을 스스로 배움의 길을 만들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인생에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신경을 쓰다 보면 비약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내 신념에 따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나의 길을 배움으로 가는 평생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



*



*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나의 나이, 중년의 꿈 개척을 도와준 나의 평생교육바우처

이인석

“평생교육바우처?”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생소했던 이름 평생교육바우처. 그런데 평생교육바우처라는 학습정보의 바다를 알게 되고 나는 마치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석 상자가 있는 밭을 발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달려와 뒤돌아보니 아직도 내 마음은 청년인데, 어느덧 주위 사람들은 나를 중년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고, ‘청년’이 아닌 ‘아저씨’,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자녀와 가족이 늘 우선이 되고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내게 무언가를 투자하고 학습하고,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조차 버거워하는 아내를 보며, **내가 이 나이에 무얼 하고 싶거나 한 것인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맘 편히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이미 마음에서 내려놓고 지내 온지 한참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내게 평생교육바우처는 다시금 주위 환경을 보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런 정보의 바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정보의 바다를 갑자기 접하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교육이 온·오프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전 살아오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굴착기 국가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학원도 학원에 등록한다고 단번에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꼼꼼한 성격상, 무엇 하나 구매할 때면 우선 제품을 상세히 살피고, 최저가를 골라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굴착기로 결심을 갖고 난 후 나는 굴착기 필기, 실기시험의 구성과 어떻게 사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갔습니다. 우선 필기는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굴착기 책자와 강의를 선택하였고, 동영상 강의와 책자를 통해 내 생애 가장 높은 96점으로 합격하는 작은 기쁨도 누리보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드디어 발급받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사전에 확인하고 문의한 굴착기 학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접수하러 간 날!, 그날 내 몸 바로 옆에서 보게 된 웅장한 굴착기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굴착기(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크레인)가 학원 입구에 웅장한 모습으로 턱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한 장비는 소형이 아닌 대형으로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에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기계였기에, 아주 가까워서 그 웅장한 기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실습을 배워나가며 내 손에서 커다란 기계가 움직이는 짜릿함 또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득점으로 1차를 한 번에 붙은 필기와 달리 커다란 굴착기를 조정하는 실기는 4차례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2회 떨어질 때에는 기본도 상하고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사용할 기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자 조금은 편안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결국 4번째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격증을 받자마자 저는 군청으로 달려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 저의 지갑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아닌 또 하나의 나를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들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도시에서 생활하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후반기는 자연과 벗 삼아 살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현재는 함께 협력하는 회사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 굴착기를 구비하여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의 때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자격증 취득의 합격으로 직접 기계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찌면 제가 꿈꾸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년의 내 꿈 성취에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바우처! 내년에는 건축관련 교육을 신청하여 이제 인생 후반기에 아내와 함께 지낼 아늑한 집을 직접 지어보는 꿈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내게 꿈을 이뤄가기 위한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어 고맙요!



*



*



*



장려상

희망은 흘러간다.

이지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탈무드 속 명언이다. 내가 사용한 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 원짜리 물고기’였을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을까.

코로나가 터지기 몇 달 전,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었다. 잠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다. 그사이 내가 하던 직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직장을 잃었다. 몇 달 쉬는 동안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더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평생을 해오던 직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것저것 시도하는 사이, 나이는 마흔을 넘어갔다. 신입으로 회사에 입사하기엔 부담스러운 나이가 되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니 두려움이 앞섰다. 코로나로 장기간 쉬게 되면서 무언가를 다시 배우기에는 비용도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사실이었다. 그러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알게 되었고 다행히 대상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이 바우처를 단순한 취미용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없었다. 내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러다 수공예를 배워보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인터넷 창업을 하면 창업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지난 8월 사업자등록을 했다. 어엿한 사장이 된 것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앞날이 막막해 매일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잘 될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평생교육바우처 덕분에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만약 35만 원이 현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나는 이 금액을 의미 있게 사용했을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나는 단연코 “아니다.” 라고 말하겠다.

나 같은 저소득층에게 35만 원은 미래를 계획하고 기회를 만드는 비용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생존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우처가 제공된 건 아주 잘 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 원짜리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으로 내게 왔다.

공모전에 글을 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자 이전에 당선된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았다. 글 하나하나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뜻 깊게 사용된 수기들을 보며 적잖은 감동도 받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출된 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나눔’이다. 모두들 ‘나 또한 나누고 싶다. 나도 베풀며 살고 싶다.’라는 다짐이 담겨있었다.

사실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계층이 아니다.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다. 단순히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닐 것이다.

빠듯한 삶 속에 ‘기회’를 선물 받았으며 그것을 통해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리라. 도움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실행력만 있으면 된다. 나도 판매를 하면서 생긴 소득의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듯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꾸준히 갖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책이 가져다주는 나눔의 선순환이지 않을까.



57세의 컴맹탈출

정OO

오늘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pc한글 문서로 A4용지에 안내문을 멋지게 작성한 후, 출력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활용하여 간단하게나마 장부 정리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간은 pc활용을 몰랐던 57살 컴맹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 할 줄 알았지, 한글 문서 작성과 파워포인트 활용 또 엑셀 활용 등은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배워보고는 싶었지만, '이 나이에...'라는 마음에 컴퓨터 학원 등록은 엄두도 못 내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컴퓨터 활용을 잘하고 싶었고, 특히 한글 엑셀 등은 실생활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만은 항상 있었습니다. 수기로 적는 것보다 깔끔하게 출력되어 나오고 언제나 수정과 편집도 가능하며 글 모양과 색깔 크기 등을 변화시키는 등의 한글 작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복잡한 수식 계산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엑셀은 저에게는 마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줘서 엑셀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부러웠습니다. 또한 한글과 엑셀이 보급 된 지가 언젠데, 아직 컴맹인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평생교육바우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교육 바우처 결제로, 시간과 장소 제한이 없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한번 pc ITQ 내용들을 배워 볼까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 ITQ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강의 ITQ 학습 내용을 따라하면서, 비록 독수리 타법이지만 한글 파일로 간단한 문장이거나 작성한 뒤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편집하는 나 자신을 보고, '아, 나도 이제 pc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법 같았던 엑셀 함수를 서투르나마 다루는 제 자신이 무척 신기했고, 지금껏 컴퓨터를 앞에 두고도 활용을 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수십 년간 컴맹이어서 창피했고 컴맹이라서 pc활용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지만 배울 용기가 나지 않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지식을 알아간다는 작은 기쁨이 그간의 큰 아쉬움을 덜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향후, 교육 바우처 이용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영어 회화도 배울 예정입니다. 학습하려는 시도도 안하면서 모르는 것에 창피해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던 나 자신을 바꾸어, 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바우처 혜택이 가능한 분들을 만나면, 예전에 제가 지인한테서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는 저도 적극적으로 교육바우처를 알리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익히고 배우고 또 알아가는 즐거움을 체험하여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자본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찾아와 실의에 바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접고 싶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 재도약 하려고 의지를 내든 차에 몇몇 개의 가게 안내문을 한글로 직접 작성하여 부착하고 엑셀로 장부를 정리해 가게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다가 한글 작업으로 명쾌하고 깔끔하게 필요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부착할 것이고, 또지금 하는 것처럼 매출 매입 지출 등을 엑셀로 잘 정리할 겁니다.

کم맹을 탈출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장사도 이제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다시 이겨낼 저 스스로를 기대합니다.



*



*



*



내 청춘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조OO

평소 부모님과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소명을 품어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은 사회적 배려 덕분에 부족한 환경에서도 저를 티 없이 맑게 키워주셨고, 저 역시 사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취업역량을 보완해,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일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취업 준비로 지친 청년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안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불합격으로 떨어진 자신감, 우연히 변화의 기회를 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이은 면접 탈락으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거울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이던 제 모습은 실패가 익숙한, 자신감이 떨어진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며 실패가 두려워 지원조차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바우처를 검색하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접하게 되었고, 사업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폭넓은 사업기관과 교육 분야를 보며 '무언가 부족한' 저의 2%의 역량을 채울 수 있겠다는 설렘을 안고 바우처를 신청했고 빠른 심사 덕분에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평생교육바우처에 선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후, 저는 스피치 강의를 통해 면접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평소 준비한 만큼 면접에서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피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가 가진 말하기 습관을 파악했고 문제점을 정리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면접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할 부분을 미리 생각해두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었고, 결국 면접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꾼 전략 덕분에 상반기에는 6곳에 지원해 4곳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아나운서 분들처럼 유창하게 면접을 치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황했음에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며 생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한 덕분입니다.

도전으로 제 청춘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돌아해보면 스피치 강의를 수강한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평소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꺼려했고, 면접에서도 말을 아끼며 다른 지원자에게 발언 기회를 양보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스스로의 얘기를 온전히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며 느낀 것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에 결국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래에 비해 취업이 늦어진 저에게 시간의 압박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하지만 스피치 강의를 통해 조금 더 여유롭고,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겼을 때 확실히 잡겠다는 각오를 되새겼습니다.

제게 주어진 청춘은 결국 도전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청춘은 20대, 30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면 누구든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팍팍한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끼신다면, 한번쯤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해보시길 권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제게는 그런 기회였고, 저는 그 덕분에 사회에서 청춘의 열정을 쏟으며 보람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



*



*



평생교육바우처가 가르쳐 준 빛나는 중년의 삶

최OO

‘취업’이란 직장을 얻는다는 의미이며, ‘이직’이란 직장이나 직업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학위취득’이란 국가 또는 대학에서, 어떤 분야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그 성취도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학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사회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 이직, 학위취득 등이 각각의 일들로 느껴질지도 모르나, **중년의 나이에 이직을 준비하려는 나에게는 취업, 이직, 학위취득 등이 하나의 일들로 다가왔다.** 3가지 모두 하나의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분야라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이직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야의 학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중년의 나이에 이직과 동시에 이러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다. 나는 주저 없이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교육부’의 정책 중 ‘평생교육’이라는 항목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접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력 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에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직무능력도 배울 수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더 확장할 수는 학문적 소양과 자격증을 얻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경력과 연동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나는 청소년관련 학위취득과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평생교육바우처’는 다양한 종류의 학위와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게끔 정책과 실무사항이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슬기로운 평생교육바우처생활, 희망의 평생교육바우처생활, 즐거운 평생교육바우처생활과 같이 분야별로 다양한 설명들이 있었다. 새롭게 변화하려는 나에게는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중요했다.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읽어 보았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한 온라인 교육기관 중 청소년 관련학과 과목에 집중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지난 1년여 간을 온라인 교육에 매달렸다. 열심히 시청하고 학습하며 시험도 보고, 과제물도 작성하고, 기말고사를 끝으로 8과목을 수료하였다.

학위취득과 더불어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직과 취업, 그리고 학위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는 늘 탐구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다. 새로운 시작과 나에게 열중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준, '평생교육바우처'가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평생교육바우처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문득,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계획했던 몇 년 전이 생각났다.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시절, '평생교육바우처'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다.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인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한 번에 모두 해결되어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도록 많은 정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자격증에 대한 도전도 가능하게 해주고, 학위취득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제안의 도움이 되기도 하며, 슬기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역할이 참으로 대단한 '평생교육바우처'이다. 교육격차와 배움에 대한 열정을 '평생교육바우처'로 해소하며, 이직과 취업 그리고 학위취득에 대한 열망해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돌이켜 보건대, 첫 직장을 퇴직하고 이직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하는 다소 막막한 상태였는데,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는 이직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졌다.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겨났으며 이는 배움을 가능하게 했고, 학위취득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는 이직의 희망과 함께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학창시절에 몰랐던 배움의 기쁨을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더불어 이직과 취업, 학위취득까지 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게 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껏 살아왔던 생활에서 이제는 다른 생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껏 내가 겪어왔던 직업에 대한 생각, 경험, 경력 등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보람찬 앞날을 향해 달려가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준 '평생교육바우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젠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준비와 면접시험 대비를 이제 준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빨리 행복해지고 싶다.



*



*



*



장려상

꿈은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것

황지혜

어릴 적 나는 꿈이 참 많았다. 유치원 선생님, 의사, 교수, 패션디자이너 등. 가족, 친척, 친구들 내 주변 모든 사람은 “그렇게 꿈이 많으면 뭐라도 하나 되겠다.”라고 했을 정도니 말이다. 그렇게 20년 후 난 뭐가 되었을까? 어른들의 말처럼 뭐 하나라도 되긴 되었다. 내가 말했던 꿈 중 하나는 아니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기계처럼 일만 해왔다.

그렇게 여느 날과 같이 야근을 하던 중, 팀장님 자녀를 잠시 맡아 돌보아주던 날이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나에게 말해주었고, 유치원에서 만들고 그렸던 것들을 마냥 해맑은 얼굴로 보여주었다. 그 해맑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어린아이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언니 울지 마, 내가 아끼는 티니핑 스티커 줄게”라고 말해주는데 눈물이 더 났다.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했다. “아, 나는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 나를 지켜야겠다.” 퇴사 전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남들처럼 보통으로 살아가고 남들과 같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밝았던 나에게 밝음이 사라지고 남은 거라곤 번 아웃 된 마음뿐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행복했었던 것을 떠올리며, 앞으로 무얼 할지, 내 꿈이 뭐였지? 다시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돈도 잘 주는 회사를 나와서 또 어디를 들어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수록 결심했다. **나도 꿈이 있었고, 그걸 지금 보란 듯이 이뤄내리라고. 하지만, 퇴직금과 남은 월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었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들로 늘 고민했다. 그러다 평생교육바우처를 만났다.**

내가 따로 들어가는 돈 없이 평생교육바우처 하나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고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제공 해주었다. 나는 한 번쯤 배우고 싶었던 수업을 다른 지역에서 들었는데, 내가 사는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것이 내 일정에 맞추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정규학원에 비해 시간적 제약이 없고, 이런 수업들도 있구나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다.

배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매 수업시간이 기다려졌다. 어릴 적에 많은 꿈을 이룰 거라며 열심히 하던 열정적인 내 모습이 보이고, 다시 밝아져 가는 것을 보니 더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다. 내 꿈이 가득 담긴 작은 공방도 꾸렸다.

그러던 중, 2022 평생교육바우처 우수이용자로도 선정되어서 한 번 더 수업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공방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수업으로 채워갔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습을 주변에 나처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부모님께도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예전처럼 오늘만 버티지 않는다. 내일의 꿈을 꾀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졌고, 내가 꿈꿔왔던 것들에 확신하며 미래를 그린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배움에 행복함을 느낀 것처럼, 언젠가 내 공방에서 나와 같은 다른 간절한 사람들에게 내 수업을 진행해주고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싶다. 꿈은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꼭 이룰 수 있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내가 망설이지 않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준 평생교육바우처. 내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배움이란 끝이 없다.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내년에도 또 보자 평생교육 바우처!



*



*



*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인	강대중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1600-3005
홈페이지	www.lllcard.kr
디자인·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